

# 대학박물관의 현황과 전망

鄭 鎮 鳳\*

## 목 차

- |                      |                |
|----------------------|----------------|
| I. 머리 말              | 3. 박물관 예산 및 재정 |
| II. 우리나라박물관 현황과 성격   | 4. 인적구성과 박물관운영 |
| III. 대학박물관 운영실태      | 5. 교육·연구활동     |
| 1. 박물관 시설물(건물) 및 전시실 | IV. 맺 음 말      |
| 2. 소장유물과 전시관계        |                |

## I. 머 리 말

박물관이란 고고학 자료, 역사유물 등의 학술적 자료를 널리 수집, 보존관리, 연구하여 많은 사람에게 전시, 교육하는 시설이라 할 수 있는데, ICOM(國際博物館會議) 현장에서는 박물관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박물관이라 함은 예술, 역사, 미술, 과학, 기술에 관한 수집품 및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등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료 표본 등을 각종의 방법으로 보존하고 연구하여 일반대중의 교육과 오락을 위하여 공개 전시함을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룩된 항구적 시설을 말한다”<sup>1)</sup>.

박물관은 찬란히 빛나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수집·보존하여 후세에 전하는 한편,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박물관 활동을 통하여 이를 일반대중에게 널리 교육하여 보다 나은 생활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대학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은 우리나라 박물관에서 대학박물관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대학박물관의 기능은 우리의 문화유산인 유물을 보존관리 전시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역사·문화연구를 활성화시키고 대학생을 비롯한 일반대중의 문화생산과 향유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시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유물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우수한 현대적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 대학박물관의 현실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 慶熙大學校 博物館

1) 이난영, 『박물관학 입문』, (주)삼화출판사, 1993, pp. 10-11.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극복의 방법을 모색해 보기 위하여 현재 대학박물관의 시설은 어떠한 수준이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한국대학박물관협회에 소속된 67개 대학박물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조사기간 1995. 3. 6~4. 8)하였는데, 67개교 중 설문에 응답한 학교는 서울 22개교 중 20개교(회신율 90.9%), 지방 45개교 중 34개교(회신율 75.6%)로 총 54개교이다(회신율 80.6%). 이 중에서 늦게 도착한 4개교를 제외하고 50개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일부항목은 1992년에 한국대학박물관협회에서 조사하여 『고문화』 40·41합집에 발표한 내용(59개교)과 본 설문을 합하여 65개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1986년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창립25주년 기념 학술발표대회에 발표한 논문도 참조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다음에서 우리나라 박물관의 현황과 성격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대학박물관의 현황과 운영실태를 파악·분석해 보고자 한다.

## II. 우리나라 박물관 현황과 성격

박물관은 설립자나 소장품의 내용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설립자에 따라 분류해 보면 국가나 공공기관이 설립한 국립·공립박물관, 민간에 의해 설립된 사립박물관, 대학이 설립한 대학박물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소장품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고고, 역사학 관련 자료를 중점으로 전시한 고고·역사박물관, 자연사 관련 자료가 중심인 자연사박물관, 민속이나 생활양식을 중심으로 전시한 인류학박물관(또는 민속박물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박물관은 소장품의 종류와 성격 또는 전문화의 정도에 따라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으로 대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박물관 숫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립박물관 22개, 사립 시립박물관 68개 등 90개이다<sup>2)</sup>. 대학박물관의 수는 한국대학박물관협회에 가입된 67개교, 한국대학박물관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대학박물관 13개교 등 80개에 달한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170개이며 이 밖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박물관, 기념관, 미술관, 자료관 등도 50여개에 이른다<sup>3)</sup>. 대학박물관은 전체 170개중 47.1%인 80개이며, 이중 67개교가 한국대학박물관협회에 가입되어 있다. 이를 볼 때 한국의 박물관에 있어서 대학박물관은 숫자상으로만 보아도 그 중심축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박물관의 성격을 살펴보면, 국립박물관은 각 지방마다(강원도, 제주도 제외) 고고·역사 중심의 종합박물관이 있고, 이 밖에 민속박물관과 기타 전문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 문화체육부, 『한국의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체육부, 1994.

3) 허준서, 「국내 전문박물관의 현황」, 『문화산업』 문화예술총서 13,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0, pp. 122 - 143.

공·사립박물관은 대부분이 전문박물관 형태를 취하고 있다.

대학박물관은 대학의 특성에 맞는 전문박물관으로 출발하여 오늘날에는 종합박물관 형태를 가지고 있다. 대학박물관들은 각기 지역적 특성을 살린 대학, 설립목적에 맞게 특별한 유물을 수집한 대학과 독자적 유물수집을 실시하여 특성화시킨 대학이 있다(표A 참조). 표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적 특성을 살린 대학이 14개교, 대학의 설립 목적에 맞게 유

표 A> 대학박물관의 특성<sup>4)</sup>

	대 학 명	특 징
지역적 특성을 살린 유물수집 대학	동아대 박물관	가야유물
	부산대 박물관	가야토기·청동기시대 옹관
	경상대 박물관	서부 경남의 선사·가야 유물
	부산여대박물관	가야옹관·토기
	계명대 박물관	선사토기·가야토기
	영남대 박물관	가야고분 유물·통일신라 유물
	창원대 박물관	낙동강 서안 선사유물
	공주사대박물관	백제토기
	한남대 박물관	백제토기
	공주교대박물관	백제와당
	충남대 박물관	백제토기
	군산대 박물관	서해안 전통어구
	목포대 박물관	서남해안 선사유물
	강릉대 박물관	강원지역 선사유물
대학의 설립목적에 맞게 특별한 유물수집을 한 대학	홍익대 박물관	조선시대 회화·근대미술품
	성균관대박물관	유교관계 유물
	숭실대 박물관	기독교 관계 자료
	육 군 박물관	군사관계 유물
독자적인 유물수집 대학	세종대 박물관	조선시대 의상·장신구
	덕성여대박물관	여속관련 유물
	건국대 박물관	청동기·수공업도구
	인하대 박물관	운반·운송도구
	성신여대박물관	서화·고지도·천문도
	경기대 박물관	재래농기구
한림대 박물관	신라동물형 토기	
합 계	25개 대학박물관	

4) 안승주, 「대학박물관의 현황」, 『대학박물관의 기능과 사명』,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86, p. 8.

물 수집을 한 대학이 4개교, 독자적인 유물 수집을 한 대학이 7개교이다. 전술한 25개교 이외에도 동국대(불교관계), 경희대(한국무속실, 시베리아지역 민속유물), 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군사관계), 숙명여대(여성풍속), 연세대(구석기 유물, 자연사), 단국대(석주선 민속박물관), 서울대(선사자료) 등을 들 수 있고, 자연사박물관이 있는 학교로는 경희대, 이화여대, 한남대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특색있는 대학박물관이 다수 있다고 여겨진다.

박물관의 지역적 분포도를 보면 국립박물관과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박물관(표B 참조)은 서울지역이 31.1%인 28개, 인천·경기지역과 부산·대구·경상지역이 각각 17.8%인 16개, 대전·충청지역이 14.4%인 13개, 광주·전라지역이 10%인 9개, 강원도와 제주도가 각각 4.4%인 4개의 順으로 나타나 지역적 편중이 심하게 나타났다.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소속 67개교 중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 32.8%인 22개교(국립 3개교)이고, 지방 소재 대학이 67.2%인 45개교(국립 25개교)로서 서울소재대학이 1/3이나 차지한다. 이 중에서 국립대학교가 41.8%인 28개교이며, 사립대학교가 58.2%인 39개교이다. 이를 합하면 서울이 31.8%인 54개, 부산·대구·경상지역이 21.2%인 36개로 전체의 53%인 90개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현재 각 대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의 총수는 529,784점(65개교 평균은 8,151점)이며, 이 중에서 국립대학교 소장 유물이 104,682점으로 19.8%, 사립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425,102점으로 80.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립박물관에서 소장

표 B) 한국의 박물관 현황

지역별 분류별	서울 시	인천 경기 지역	강 원 도	대전 충청 지역	부산 대구 경상 지역	광주 전라 지역	제 주 도	합 계
국립박물관	7	3	0	5	4	3	0	22
등록된 공·사립 박물관	21	13	4	8	12	6	4	68
소 계	28 (31.1%)	16 (17.8%)	4 (4.4%)	13 (14.4%)	16 (17.8%)	9 (10.0%)	4 (4.4%)	90 (100%)
대학박물관협회 소속 대학박물관	22	4	4	9	17	10	1	67
협회 미소속 대학박물관	4	0	0	3	3	3	0	13
소 계	26 (32.5%)	4 (5.0%)	4 (5.0%)	12 (15.0%)	20 (25.0%)	13 (16.3%)	1 (1.3%)	80 (100%)
합 계	54 (31.8%)	20 (11.8%)	8 (4.7%)	25 (14.7%)	36 (21.2%)	22 (12.9%)	5 (2.9%)	170 (100%)

하고 있는 유물은 424,895점<sup>5)</sup>인데 이 중에서 우정박물관 160,000여점, 산림박물관 31,082점으로 이를 빼면 실질적으로 233,813점(이 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물수는 119,690점)이다. 대학박물관이 국립박물관 보다 유물을 50%이상 많이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등록되지 않은 공·사립박물관에서 많은 수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표 C> 지방 국립박물관(8관)의 전시실 및 유물수 현황

	경주 박물관	광주 박물관	전주 박물관	청주 박물관	진주 박물관	부여 박물관	대구 박물관	공주 박물관	합계	평균
전시면적(평)	923	583	799	437	715	680	634	230	5,001	625.1
유물수(점)	14,632	34,024	3,087	3,602	1,096	7,876	1,300	7,981	73,589	9,198.6

다음에서는 우리나라 박물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학박물관의 현황이 어떠한가를 조사하여 진단해 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학박물관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Ⅲ. 대학박물관 운영 실태

우리나라 대학의 수는 1994년 현재 대학(교) 131개교, 교육대학 11개교로 총 142개교이다<sup>6)</sup>. 이 중 한국대학박물관협회에 가입된 대학은 전체의 47.2%인 67개교이다. 이는 1982년 52개교, 1986년 58개교에서 늘어난 것이다. 지금까지 대학박물관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논의<sup>7)</sup>가 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부족했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 5) 문화체육부, 『한국의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체육부, 1994, 139-142.  
국립박물관 소장유물수는 상기서의 '국립박물관 현황'에서 발췌하였고, 대학박물관 소장유물수는 『고문화』40·41합집(1992)에 발표한 내용과 본 실문을 합하여 분석한 수치임.  
단, 이 수량은 토기편 등의 경우, 일괄하여 1점으로 처리하는 사례와 각각을 1점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어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6) 교육부, 국립교육평가원,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국립교육평가원, 1994. p. 650. 『한국대학년감 94』 제6호, 도서출판 일진기획, 1994, p. 164.
- 7) 『고문화 17집(1979)』, 『고문화 21집(1982, 한국대학박물관 발전을 위한 협의회 특집)』, 『고문화 28·29합집(1986, 창립 25주년 기념특집 대학박물관의 기능과 사명)』, 『고문화 35집(1989)』, 『고문화 40·41합집(1992)』, 『고문화 44집(1994)』에서 문제 제기 및 논의가 있었다. 그 주제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한국대학박물관과 박물관협회의 어제와 오늘」(손보기), 「박물관과 학예원에 대하여」(권계순), 「한국대학박물관의 회고와 전망」(진홍섭), 「한국대학박물관의 현황과 문제점」(안승주), 「대학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윤세영), 「대학박물관의 현황」(안승주), 「대학박물관의 교육적 기능과 사명」(허선도), 「대학박물관의 학술적 기능과 사명」(이용조), 「대학박물관의 사회·문화적 기능과 사명」(정영화), 「박물관 자료 전산화의 필요성과 문제점 -프로그램 공동개발을 위한-」(나선화), 「대학박물관, 법적 근거마련이 시급하다」(유원적), 「한국군사박물관의 현황과 과제」(김영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개정방향과 그 시안」(유원적).

보다 실질적인 변화·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대학박물관의 학예원이 중심이 되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바램으로 대학박물관의 시설물(건물) 및 전시실, 소장유물과 전시관계, 예산 및 재정, 인적구성과 운영, 교육·연구활동으로 나누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 1. 박물관 시설물(건물) 및 전시실

먼저 종합박물관의 성격에 대해 설문한 결과(표1-1) '종합박물관'라는 응답이 88%인 44개교이고, '아니다'라는 응답이 12%인 6개교였다. 대부분의 대학박물관이 전문박물관(지역적 특성을 가진, 또는 대학의 설립 목적에 맞게 특별한 유물을 집중적으로 수집)으로 출발하였지만 현재는 종합박물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 대학 박물관은 설립 취지 자체가 교육적 목적이 최우선이므로 교육에 관련된 유물들을 일차적으로 수집하였다. 따라서 대학박물관이 종합박물관의 성격을 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박물관 설립의 목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지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럴 경우 각 대학박물관마다 가지는 변별적 특성이 희석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종합박물관을 지향하되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성격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각 대학 박물관마다 중점을 두는 분야를 조사하였다.

박물관 중점분야에 대한 설문 결과(표1-2)는 고고박물관 중심이라고 응답한 학교가 28%인 14개교로 가장 많았고, 역사박물관 중심이라고 응답한 학교가 20%인 10개교였으며, 민속박물관 중심이라고 응답한 학교가 16%인 8개교였다. 그리고 특수박물관이라고 응답한 학교도 6개교에 달한다. 그 밖에도 복합적인 성격이 혼합된 박물관(고고+역사+민속, 고고+민속, 역사+민속)이라는 응답도 16%인 8개교에 달한다. 이것을 보면 대학박물관이 추구하는 중심분야는 고고분야, 역사분야, 민속분야 등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이 중에서 고고분야의 비중이 강한 것은 대학 박물관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술활동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고고학이 주로 박물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박물관은 원칙적으로 고고분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역사·민속분야나 기타 분야의 성격이 강조되는 것은 박물관에 근무하는 요원들의 전공분야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박물관 건물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표1-3)라는 질문에는 '독립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36%인 18개교(이번 조사에서 빠진 5개 학교가 더 있음)이고, '타기관과 병설되어 있다'는 학교는 54%인 27개교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박물관의 2/3정도가 독립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정도의 독립건물수도 82년에는 9개교, 86년에는 16개교(32%)에 비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박물관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박물관 전용건물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단순히 공간 확보에 머무는 것은 유물의 관리 보존과 수집 확대뿐만 아니라 교

육·연구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은 대학의 재정 자립도와 관련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박물관에 대한 인식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당국이 시설 투자를 하고자하는 의욕을 보면(표1-11), '적극적이다'라고 응답한 학교는 6%인 3개교, '보통이다'는 30%인 15개교인데, 반면에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하다'가 62%인 31개교에 달해 박물관 발전에 대학당국의 무관심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박물관의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대학에서는 자체적으로 박물관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박물관 총면적을 보면(표1-4, 표1-10), 92년 자료를 포함한 65개교를 합친 면적이 33,207평(평균 511평)이다. 하지만 평균면적에 미달되는 대학이 69.2%인 45개교에 달해 각 대학마다 면적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중 1,000평 이상이 16.9%인 11개교이고, 400평 이상이 24.6%인 16개교이다. 400평 미만이 58.5%인 38개교에 달한다. 박물관 사용공간으로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는 100평 미만도 10.8%인 7개교에 달한다. 한편 야외 전시장을 갖추고 있는 박물관은 전체의 24.6%인 16개교이다.

박물관 전시실 면적을 보면(표1-5, 표1-10), 65개교 전체면적이 18,840평(평균 299평)이다. 대부분의 대학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상 전문박물관 등록요건인 "자료 100점 이상, 전문직원 1인 이상, 100제곱미터이상의 전시실"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4개교가 전시실의 구비조건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균인 299평이 안되는 면적을 가진 대학이 67.7%인 44개교에 달하며 전시실 면적 또한 각 대학마다 편차가 심하다. 200평 이상인 대학이 40%인 26개교이고, 200평 미만인 학교가 60%인 39개교에 달한다. 100평 미만이거나 전시실을 갖추고 있지 않은 대학을 합하면 27.7%인 18개교에 달한다. 이는 대학박물관 중 1/2이상이 200평정도의 전시실 공간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참고로 국립중앙박물관을 제외한 8개 국립지방박물관의 전시실 면적을 보면(표C), 평균 625.1평으로 나타나 대학박물관 65개교 전체평균 299평과 비교해 보면 2배 이상의 면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시실 수를 보면(표1-6), 3개이상의 전시실을 갖춘 대학이 50%인 25개교인 것으로 조사되어 반 정도가 주체별로 전시실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총 면적 對比 전시실 면적의 구성비율을 보면(표1-7), 전체 면적의 50%이상을 전시실로 사용하고 있는 대학이 58.5%인 38개교에 달한다.

수장고 면적을 보면(표1-8), 100평 이상을 수장고로 사용하고 있는 대학이 24%인 12개교 밖에 되지 않고, 수장고 면적의 평균은 전체 면적의 평균인 511평의 15.7%인 80평 밖에 되지 않는다. 이를 보면 대학박물관의 수장고 면적이 매우 좁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는 유물의 보존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총 면적 對比 수장고 면적 비율(표1-9)을 보더라도 20%이상인 대학이 26%인 13개교 밖에 되지 않는다. 10%미만인 대학도 28%인 14개교에 달하는 것을 보면 수장고 면적이

협소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음의 표D, E, F>는 참고적으로 박물관의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외국의 예를

표 D> 일본 지역박물관의 모델案<sup>8)</sup>

		Model案 A	Model案 B	Model案C (沼津市歴史 民俗資料館)	S대학박물관
구 성 인 원 및 면 적	전체 구성 인원	13~15인 (학예원 8~9인)	20인 전후 (학예원 10~12인)	5인 (학예원 3인)	18인 (교수 5인, 학예원 3인)
	연 면 적	3,000m <sup>2</sup> (909평)	4,000m <sup>2</sup> (1,212평)	891m <sup>2</sup> (270평)	6,165m <sup>2</sup> (1,865평)
利 用 者 空 間	전시실, 특별전시실	800m <sup>2</sup> (242평, 27%)	1,200m <sup>2</sup> (364평, 30%)	324m <sup>2</sup> (98평, 36%)	603평, 32.3%
	강당, 현관(홀), 접수 등	300m <sup>2</sup> (91평, 10%)	362m <sup>2</sup> (110평, 9%)	130m <sup>2</sup> (39평, 15%)	173평, 9.3%
	* 소 계	1,100m <sup>2</sup> (333평, 37%)	1,562m <sup>2</sup> (474평, 39%)	454m <sup>2</sup> (138평, 50%)	776평, 41.6%
學 藝 空 間	연 구 실	60m <sup>2</sup> (18평, 2%)	110m <sup>2</sup> (33평, 3%)	31m <sup>2</sup> (10평, 3%)	85평, 4.6%
	도서, 정리, 작업 사진, 기재실 등	193m <sup>2</sup> (58평, 6%)	260m <sup>2</sup> (79평, 7%)	8m <sup>2</sup> (3평, 1%)	776평, 9.6%
	수 장 실	600m <sup>2</sup> (182평, 20%)	665m <sup>2</sup> (202평, 17%)	182m <sup>2</sup> (55평, 20%)	181평, 9.7%
	하역실, 준비실, 엘리베이터 등	67m <sup>2</sup> (20평, 2%)	130m <sup>2</sup> (40평, 3%)	69m <sup>2</sup> (21평, 8%)	
	* 소 계	920m <sup>2</sup> (279평, 31%)	1,165m <sup>2</sup> (353평, 29%)	290m <sup>2</sup> (88평, 33%)	445평, 23.9%
監 理 空 間	관방, 사무, 응접, 회의실 등	115m <sup>2</sup> (35평, 4%)	160m <sup>2</sup> (48평, 4%)	23m <sup>2</sup> (7평, 3%)	34평, 1.8%
	설비기계실	200m <sup>2</sup> (61평, 7%)	250m <sup>2</sup> (76평, 6%)	50m <sup>2</sup> (15평, 6%)	128평, 6.9%
	회장, 탕비실 등	65m <sup>2</sup> (20평, 2%)	63m <sup>2</sup> (20평, 2%)	77m <sup>2</sup> (23평, 9%)	483평, 25.9%
	기타 공용시설	600m <sup>2</sup> (182평, 20%)	800m <sup>2</sup> (242평, 20%)		
	* 소 계	980m <sup>2</sup> (279평, 32%)	1,273m <sup>2</sup> (386평, 31%)	150m <sup>2</sup> (45평, 18%)	645평, 34.6%

8) 伊藤壽郎, 森田恒之 編著, 『博物館概論』, (株)學苑社, 昭和60年, pp. 407-411.



들어 살펴 본 것이다. 첫째, 일본 지역박물관의 모델은 이용자공간(37~39%), 학예공간(29~31%), 감리시설(31~32%)의 3가지로 박물관의 공간구성을 분할하였다. 이용자 공간은 전시실, 특별전시실, 강당, 홀, 안내소 등이고, 학예공간은 연구실, 도서실, 정리실, 작업실, 사진실, 준비실 등과 수장고가 이에 포함된다. 감리공간은 관장실, 응접실, 회의실, 화장실 등과 설비 기계실을 말한다.

둘째, 위니펙 미술관의 소요공간을 살펴보면, 공개수장품 공간(Public Collections, 30~37%), 비공개수장품 공간(Non-Public Collections, 18~22%), 공개비수장품 공간(Public Non-Collections, 25~26%), 비공개비수장품 공간(Non-Public Non-Collections, 20~22%) 4가지로 분류하였다. 공개수장품 공간은 전시실이고, 비공개수장품 공간은 수장고, 보존실, 전시준비실, 사진실, 하역실 등이다. 공개비수장품 공간은 입구부터 안내실, 홀, 교육실, 휴게실, 시청각실, 매점 등이 이에 속한다. 비공개비수장품 공간은 관장실, 작업실, 창고, 기계실 등을 말한다.

셋째, 박물관의 공간을 기능에 따라 사무관리부문(4%), 전시·서비스부문(32%), 연구부문(35%), 교육보급부문(7%), 기계부문(5%), 기타공간(17%) 등 6가지로 배분하고 있다. 전시·서비스부문은 전시실과 홀, 식당 등이고, 연구부문은 수장고와 연구실, 도서실, 소독

표 E> 위니펙 미술관의 소요공간과 현사용 공간 대비<sup>9)</sup>

단위 : 평, 1ft<sup>2</sup>=0.0281평

	공개 수장품 Public Collections	공개 비수장품 Public Non-Collections	합계(공개) Total Public
현재사용	857(37%)	570(25%)	1,427(62%)
소요공간	1,040(30%)	871(26%)	1,911(56%)
S대 박물관	603(32.3%)	389(20.9%)	992(53.2%)
	비공개 수장품 Non-Public Collections	비공개 비수장품 Non-Public Non-Collections	합계(비공개) Total Non-Public
현재사용	402(18%)	455(20%)	857(38%)
소요공간	731(22%)	759(22%)	1,490(44%)
S대 박물관	342(18.3%)	532(28.5%)	874(46.9%)
	수장품 계 Total Collections	비수장품 계 Total Non-Collections	총합계 Total
현재사용	1,259(55%)	1,026(45%)	2,285평(100%)
소요공간	1,770(52%)	1,630(48%)	3,400평(100%)
S대 박물관	945(50.7%)	921(49.4%)	1,865평(100%)

9) Gail Dexter Lord & Barry Lord, 『The Manual of Museum Planning』, London, HMSO Publication, 1991, 241-245.

실 등을 말한다. 교육보급부문은 강당, 소회의실, 학습실 등이고, 기계부문은 공조실, 향은·향습조정실 등을 말한다.

표 F> 박물관 공간의 기능적 배분<sup>10)</sup>

부 문 별	室 名	면적(단위 : 평, 비율)	S대 박물관
1) 사무관리부문	관장, 사무, 응접실 등	74(4%)	34(2%)
2) 전시·서비스부문	전시실	500(27%)	603(32.3%)
	홀, 식당 등	108(5%)	94(5%)
		소계 : 608(32%)	소계 : 697(37.5%)
3) 연구부문	수장고	500(27%)	181(9.7%)
	연구, 도서, 소독실 등	148(7%)	264(14.2%)
		소계 : 648(35%)	소계 : 445(23.9%)
4) 교육보급부문	강당, 소회의실, 학습실 등	120(7%)	79(4.2%)
5) 기계부문	공조실 등	99(5%)	128(6.9%)
6) 기타 공간		325(17%)	483(25.9%)
	* 합 계	1,874평(100%)	1,865평(100%)

아래의 표G>를 보면 한국대학박물관의 전시공간과 수장고 공간을 선진국 모델안 공간과 상호 비교하였다. 대학박물관의 경우 전시공간을 비교해 보면 총면적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58.5%로 나타나고 있어서 일본이나 서양에 비해 전시공간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수장고는 15.7%를 보이고 있어 약간 적게 나타나고 있다. 전시공간과 수장고의 면적이 총면적의 74.2%를 차지하고 있어 이 공간이 대학박물관의 주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박물관이 유물을 수집하여 전시하는데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박물관은 유물 전시뿐만 아니라 학술, 교육, 문화사업도 주요 기능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이런 사업에 필요한 공간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은 박물관의 기본 기능이 상실된 절름발이식 운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대학박물관의 면적이 비교적 적기 때

표 G> 전시실과 수장고의 공간비교

	일본 지역박물관 모델안	위니펙 미술관 모델	박물관 공간의 기능적 배분모델	한국대학박물관 평균치
전 시 실	27~36%	30~37%	27%	58.5%
수 장 고	17~20%	18~22%	27%	15.7%

10) 加藤有次 著, 『博物館學序論』, 雄山閣, 平成6年, pp. 202-210.

문에, 주어진 작은 공간 속에서 최대한의 전시공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시공간을 재조정 하기 보다는 박물관 면적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에 독립건물로 건립하여 개관한 S대학박물관을 표 D, E, F>의 모델에 비교해 본 결과, 연구부문에서는 3모델보다 S대학박물관이 약간 좁지만 비교적 공간구성이 비슷하게 나타나 앞으로 타 대학이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할 때 공간분할부분에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된다.

현 시설에 대한 문제점에서(표1-12),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한 부분을 보면, 수장고의 보존환경이 78%인 39개교이고, 空調施設이 76%인 38개교, 전시실의 보존환경, 시설의 규모 및 면적이 68%인 34개교, 조명시설이 56%인 26개교, 진열장의 수준이 52%인 26개교, 화재 및 보안시설이 46%인 23개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모든 시설면에서 불만족하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보존환경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86년 자료(표1-13)에서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현재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대학당국이 대학박물관에 대한 투자가 인색했다고 할 수 있다.

## 2. 소장유물과 전시관계

우리나라 박물관 중에서 대학박물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앞에서 실제로 보았다. 따라서 박물관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대학박물관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박물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추어 볼 때, 국가적인 지원은 전무한 상태이며, 이것은 대학박물관이 정체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대학박물관은 법률 제4410호로 1991년 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도 제외되어 있어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원적은 「대학박물관,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sup>11)</sup>」라는 논문에서 대학박물관의 육성은 대학박물관의 법적 설치근거가 선결되어야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개정방향과 그 시안<sup>12)</sup>까지 마련하였다. 그는 '대학도서관의 경우 국·사립을 막론하고 도서관 진흥법과 동 시행령 및 대학 설치기준령에 설치 근거와 기준이 명시되었기 때문에 팔목의 발전을 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하루속히 국가에서는 대학박물관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과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표2-1>을 보면 5,000점 이상 소장하고 있는 대학이 34.4%인 23개교나 된다. 86년의 16개교(32%)에 비하면 그 절대수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그동안 꾸준히 유적발굴,

11) 유원적, 「대학박물관,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고문화』 제40·41 합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92, pp. 133-141.

12) 유원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개정방향과 그 시안」, 『고문화』 44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94, pp. 71-87.

또는 구입 및 기증을 통해 유물수량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유물수량은 86년 47개교 380,045점에서 95년 65개교 529,784점으로 150,000여점 정도 증가했다.

전시유물 수량을 보면(표2-2), 응답한 45개교(응답한 50개교 중 무응답 5개교 제외)에서 45,927점(평균 1,021점)을 전시하고 있다. 이 중 1,000점 미만을 전시하는 학교수는 54%인 27개교에 달한다. 전시실 면적이 200평 이하인 학교가 40%인 26개교이고, 소장유물 중 전시유물의 비율을 보더라도(표2-3) 20% 미만인 학교가 40%인 20개교에 달하고 있어서 박물관 전체의 면적이 좁기 때문에 전시공간도 매우 좁게 나타나고 있다.

유물의 소장경위에 대한 조사결과는(표2-4), 48%인 24개교가 구입품을 위주로 소장하고 있었고, 기증품 위주가 14개교, 발굴품 위주가 11개교, 기탁(수탁)품 위주가 1개교였다. 86년 자료를 비교해도 구입에 크게 의존하는 대학이 36%인 18개교이고, 발굴품 위주와 기증품 위주가 각각 8개교, 7개교로 소장경위는 예전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유물의 등재방법은 유물대장 및 유물카드로 등재하는 학교가 90%인 45개였고, 전산화되어 있는 곳도 4개교에 달했다. 그러나 1개교는 '유물등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표2-5).

유물전산화 계획에 대한 질문(표2-7)에는 '있다'고 대답한 학교가 72%인 36개교였고(표2-6),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95학년도 5개교, 96학년도 9개교로 이미 '되어 있다'고 응답한 4개교를 합하면 18개교가 96학년도까지 전산화 계획이 있다고 하였다.

박물관의 합리적 운영과 박물관 기능의 확대라는 의미를 갖는 박물관 자료전산화 작업은 고도정보화사회로 치닫는 국제사회에서 대학박물관의 위치확보와 역할수행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폭주하는 국내외의 자료를 입력하여 활용하는 방법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박물관의 전산화에 있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자료의 검색, 공통분류방안작성, 명칭통일 등이며 아울러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sup>13)</sup>.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대학박물관협회 차원의 통일된 전산화시스템을 확정하여 서로 자료교환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연구와 교육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최근에 이러한 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통일된 방법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정은숙의 「박물관자료 전산화를 위한 분류방안에 관한 연구<sup>14)</sup>」에서는 분류방안으로서 어느유물이나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유물번호, 유물명칭, 수량, 시대, 수장연월일, 수장구분, 수장처, 출토지, 수입경위, 재질, 기

12) 나선화, 「박물관자료 전산화의 필요성과 문제점」, 『고문화』 35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89, pp. 95-101.

13) 정은숙, 「박물관자료 전산화를 위한 분류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5.

정은숙은 자신의 분류방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있다. 첫째, 공통분류방안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우선 명칭 통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둘째, 박물관 간의 상호 의사를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이러한 분류방안을 표준화된 형식으로 채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법, 문양, 구조특징 등 13개 항목의 선정과 기존분류방식의 공통 항목에 장르 추가를 제안하였다.

주당 개관일수는 5일 이상 개관하는 곳이 58%인 29개교로 제일 많고, 3~4일 14%인 7개교, 1~2일이 12%인 6개교, 비정기개관 또는 거의 하지 않는다가 14%인 7개교로 응답하였다(표2-8). 이를 86년 자료와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86년보다 개관일수가 늘지 않았음을 볼 때, 자료공개를 위한 노력이 소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학박물관의 연간 관람인원을 살펴보면(92년도 자료), 49개 대학에서 총 359,044명인데 이 중에서 사관학교(3개교)의 관람객 수가 58.5%인 210,000명이다. 이 3개교를 제외한 46개교는 149,044명으로 1개교 평균은 3,240명이다.

방학중 개관 여부에 대해서는 '한다'는 곳이 46%인 23개교, '안한다'는 곳이 50%인 25개교로 대학박물관 중 절반만이 개관을 하고 있다(표2-9). 관람대상자는 90%가 일반인 모두가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표2-10).

"박물관 홍보자료가 있는가?"(표2-11)라는 질문에는 64.2%가 도록과 팸플릿을 이용하고 있었고, 8개교는 홍보를 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팸플릿 뿐만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별전시회 개최에 관한 질문(표2-12)에는 매년 실시하는 곳이 7개교,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곳이 9개교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곳이 16개교밖에 되지 않는다. 박물관은 문화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기관으로서 정기적인 특별전시회를 기획하여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생산주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겠다.

### 3. 박물관 예산 및 재정

박물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 교육, 전시, 유물보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적자원 확보나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박물관의 재정을 보면 86년이나 지금이나 빈약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는 박물관의 재원이 사립대학교의 경우 대학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미하며, 국립대학교의 경우는<sup>15)</sup> 국비예산에 계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세한 기성회 예산에서 겨우 운영비 일부만 보조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표3-1>을 보면, 연간예산 3,000만원 이상인 학교가 86년에도에 비해 14개교에서 20개교로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줄었다고도 할 수 있다. 대학박물관의 교육 연구활동이 미진한 것도 인적자원 확보 등의 문제도 있지만 빈약한 예산이 적극적인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표3-2>를 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예산이 '적당하다'고 대답한 학교가 5개교에

15) 유원적, 「대학박물관, 법적인거 마련이 시급하다」, 『고문화』 제40·41 합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92, pp. 133-141.

불과하고, '부족하다'고 응답한 학교가 무려 43개교에 달하는 것을 보면 박물관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건이 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표3-5>의 예산 확충의 희망 정도를 보면 '50%이상 확충되어야 한다'고 대답한 학교가 절반 정도인 23개교(이중 19개교는 100% 이상)에 달해 대폭적으로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3-3>의 유물구입비의 비율을 보면, 86년과 비교하여 유물구입비 비중은 좀더 적어졌음을 볼 수 있다.

증액을 요망하는 예산계정의 항목을 보면(표3-4), 조사연구비(28.3%), 시설비(21.2%), 유물구입비(18.2%), 교육활동비(11.1%), 관리운영비(10.1%) 순으로 나타났고, 86년도 자료는 1순위가 유물구입비(32.2%)이고, 조사연구비(29.9%), 시설비(13.8%), 교육활동비(10.3%), 인건비(9.2%)順으로 나타났다. 이를 분석하여 보면 학예연구원 대부분이 교육활동 보다는 조사연구에 치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술조사용역의 대외의존예산이 100%이상인 학교가 30%인 15개교에 달하는 것을 보면(표3-6), 조사 연구에는 용역이 절대적임을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

#### 4. 인적구성과 박물관운영

대학박물관이 효율적이고 보다 활발한 교육 연구활동을 하려면 예산 못지않게 박물관 운영 전문요원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대학박물관의 활동은 미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직제, 박물관장, 운영위원회, 전임직원에 관한 현 실정의 정도를 파악해 보고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 1) 직제

표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부서와 행정부서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곳이 36%인 18개교로 1/3정도가 연구부서로 독립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는 연구부서명은 대부분이 학예연구실 또는 연구실로 되어 있고, 행정부서는 서무과로 되어 있다. 또 연구부서의 실(부)장은 전임교원 이상이 5개교, 학예연구원(사)가 10개교, 일반직원이 2개교, 기타가 1개교로 연구실의 대부분은 학예연구원이 실(부)장과 실무를 함께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관장

박물관에 있어서 관장은 박물관 활동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대표자로서, 학예연구의 전문성과 운영, 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과 운영예산 확보를 위한 대외 협의 능력 등을 두루 갖추어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대학 박물관의 관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관장의 직위를 보면(표4-2-1) 교수가 70%인 35명, 부교수가 20%인 10명, 조교수가 8%인 4명으로서 교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4%인 12개교 관장이 교무위원

을 겸임하고 있다(표4-2-2). 교무위원은 대학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에 교무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학교의 박물관장은 박물관을 발전시키는데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박물관 일에만 전념하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보직을 겸하고 있는 관장은 18%인 9개교이다(표4-2-3). 겸임하고 있는 보직명을 보면 부총장, 문화연구소장 등 박물관 직무와 연관된 보직이 대부분으로 큰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평균연령을 보면 54세(표4-2-4)로 86년과 같게 나타났다. 40대가 14명, 50대가 23명, 60대 이상이 14명으로 50대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관장의 강의부담을 보면(표4-2-5), 대개 7~9시간을 중심으로 6시간 이하나, 10시간 이상이 각각 30%로 나타났다. 10시간 이상이 15개교나 되는 과중한 강의 부담은 박물관을 운영하고 활동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86년도 부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학술조사가 방학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러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전공분야를 보면(표4-2-6), 역사학이 20개교인 40%로 가장 많고, 고고학 11개교(22%), 미술사학 8개교(16%), 민속학 2개교(4%), 국문학 1개교(2%) 순으로 84%가 관련 학과라고 볼 수 있지만 지리학(4%)을 전공으로도 볼 수 있어 대부분의 관장은 박물관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혀 관련이 없는 전공을 가진 관장은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야 하는 박물관으로서는 각 대학 박물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전공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다.

관장의 임기를 보면(표4-2-7), 86%인 43개교가 2년으로 대부분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평균 재임기간은(표4-2-8) 3.62년으로 대부분이 중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 운영위원회

박물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박물관에서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 예결산 심의, 규정 개폐, 구입유물 선정 등이 운영위원회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표4-3-1>의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질문에는 90%인 45개교가 구성되어 있다고 답하였다. 이를 보아 대부분의 박물관은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그 역할은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박물관장이 68%인 34개교가 맡고 있으나, 총장, 부총장 등의 답변도 18%나 있었다(표4-3-2).

구성인원은 6~9인이 48%(24개교)로 제일 많고, 5인 이하가 32%(16개교), 10인 이상 10%(5개교)로 나타났다(표4-3-3).

운영위원회 기능을 복수응답으로 물어본 결과는 주요정책의 심의 의결 35.3%, 규정개폐

23.5%, 예결산 심의 17.6%, 구입유물 선정 14.7%, 기타 3.9% 순으로 나타났다(표4-3-4).

표4-3-5>의 실질적인 역할을 묻는 사항에서 '명목상의 조직으로 실질적인 도움에는 한계'라는 응답이 44%, '자문역할 정도' 36%,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10%로 나타나 적극적인 활동이 되지를 앓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하지만 운영위원회 필요성을 묻는 질문(표4-3-7)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32%, '어느 정도 필요하다' 62%, '불필요 및 기타' 6%로 나타나 운영위원회가 박물관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실질적인 운영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들의 전공영역을 보면 고고학 등의 전공 관련자가 53.35%(136명)로 과반수 정도가 운영위원회에 관여하고 있어서 적극적인 활동만 뒷받침 된다면, 박물관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별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의 박물관 관련 전공자 비율을 보면(표4-3-6), 50%이상 48%(24개교), 50% 미만 38%(19개교)로 전공자 비율이 높은 대학이 조금 많게 나타났다.

#### 4) 전임직원

전문직원이라 함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1992. 대통령령 제13653호) 제6조 1항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 연구 기타 이와 관련되는 전문적 사항을 담당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다. 박물관의 실질적인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전임직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예(연구)직의 직제는 66%인 33개교(표4-4-1)에서 있다고 응답하였고, 직제상의 신분(직급)을 묻는 질문(표4-4-2)에는 연구직원 31.3%, 일반직원 19.4%, 조교 17.9%, 전문직원 7.5% 등으로 나타났으며, 교원도 3.0%인 2명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교원도 전문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학예연구사(원)이 대부분이다. 학예연구직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직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격은 학사 이상이 대부분이고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규정한 대학도 일부 있다.

학예연구직의 직제상 직급제도를 보면, 국립대학교의 경우 학예관(일반직 5급), 학예연구사(일반직 6급 또는 7급), 조교(일반직 7급), 기성회직 연구원, 임시직 학예연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학예연구사만 있는 곳이 9개교, 학예연구사와 조교가 함께 있는 곳이 4개교 등으로 가장 많고, 학예관과 학예연구사, 학예연구사와 기성회직 연구원, 임시직 학예연구원, 조교만 있는 박물관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예연구사가 있는 곳도 학예관 T/O가 없어 승진기회가 없다는 불리함이 있으며, 하물며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이가 적지 않아 신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립대학교의 경우는 일반직 4급에서 8,9급까지의 학예연구사(원) 및 조교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는 박물관 재직년한에 따라서 직급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

표4-4-3>의 박물관 직원의 총수를 살펴보면 1인 5개교(10%), 2인 13개교(26%), 3~5인 19개교(38%), 6~8인 4개교(8%), 9인 이상 9개교(18%)로 나타났다. 이는 관리 경비직 및 사환까지 포함된 것이다.

전임직원의 구성을 보면(표4-4-4), 학예직+사무직 16개교(32%), 학예·사무 겸직 16개교(32%)로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학예·사무 겸직+학예직+사무직 4개교(8%), 학예·사무 겸직+학예직 2개교(4%), 학예·사무 겸직+사무직 2개교(4%), 학예직 3개교(4%), 사무직 4개교(8%), 한시직 및 기타 3개교(6%)로 나타났다. 이를 분석해 보면 국립대학교의 경우 사립대학교 보다 학예직과 사무직이 분리되어 있는 곳이 16개교 중 10개교로 많고, 사립대학은 학예·사무를 겸직하고 있는 곳이 20개교 중 15개교로 많이 나타났다. 또한 조교는 22개교(44%)에서 1명 내지 2명 정도로 운용하고 있고, 경비·환경·관리 직원이 있는 곳은 14개교(28%) 밖에 안되어 박물관의 보안관리가 허술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전공을 보면, 총 90명 중 고고학 37명(41.1%), 역사학 18명(20.0%), 미술사 15명(16.7%), 행정 4명(4.4%), 민속학 3명(3.3%) 등이며 보존과학, 도예, 어업공학, 선박공학, 교육학, 생물학, 사회학 등도 있었다. 대부분이 고고학 전공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대학박물관이 고고분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과 일치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박물관의 학술활동은 유적조사가 대표적인데, 박물관 요원들이 발굴작업에 너무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박물관 다른 기능의 역할 수행에 어려운 실정이다.

전임직원의 대우(표4-4-5)는 타 직종에 비해 '비슷하다'고 답변한 학교는 31개교 62%, 타직종보다 '못하다'는 8개교 16%, '매우 못하다'는 3개교 6%, 타직종 보다 '좋다'는 2개교 4%로 대부분이 비슷하나 22%는 열악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 및 승급이 타직종에 비해서는(표4-4-6) '일반 사무직에 준한다'고 답변한 학교는 20개교 40%, '일반사무직에 비해 나쁘다'는 10개교 20%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일반사무직에 준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한시직으로 취급되기 때문일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박물관 활동 중에서 연구활동에 해당되는 발굴조사에 치중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문제에 급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에 전임직원의 연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한 결과는 전임직원들이 발굴조사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박물관 모든 부분에 걸쳐 지식을 갖추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표4-4-7>의 전임직원의 연수교육의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 '반드시 필요하다' 28%, '필요하다' 58%, '그저그렇다' 6%, '필요치 않다' 2%, '무응답' 6%로 나타나 전임직원들이 연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86%가 긍정적이 답변을 해 대부분이 많은 공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수교육이 필요하다면 그 내용은 어떤것이 좋겠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표4-4-8>에서 보듯이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를 1순위로 꼽았고, 2순위로 '유물의 전시에 관한 사항'과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은 다른 부분보다 낮게 나타나 유물의 보존관리, 전시와 연구에 보다 많은 지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밖에 박물관에 관한 기본교육, 전문지식의 습득을 위한 교육, 어학, 선진박물관 견학 등의 의견도 있었다.

## 5. 교육 연구활동

대학박물관의 연구활동은 발굴·지표조사 등과 같은 문화유적조사, 학술자료집 및 학술지 발간 등이 있다. 문화유적조사인 지표조사와 발굴작업은 박물관의 기능상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학술자료집 및 학술지는 문화유적조사보고서, 도록, 소장품목록, 박물관 안내책자, 박물관 회보, 정기간행 학술지 등이 있다.

교육활동은 학술세미나 개최와, 박물관 교실 등의 사회교육활동, 전시유물의 현장학습 등이 있다.

정기학술지를 발행하는 곳(표5-1)은 22%인 11개교에 지나지 않으며, 발행하고 있지 않는 대학이 78%인 39개교에 달해 대부분의 대학이 정기학술지 발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유적 조사보고서(발굴, 지표 등)이외에는 학술지를 발행할 인력이나 예산 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표5-2)에는 36%인 18개교가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64%인 32개교가 '개최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있다고 응답한 대학의 개최 횟수를 보면, 1년에 1회가 8개교로 가장 많고 1년에 2회 이상이 5개교 또 부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곳이 5개교로 나타나 많은 대학이 학술행사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조사를 실시 하고 있는가?'(표5-3)라는 질문에는 82%인 41개교가 '실시 하고 있다'고 응답해 학술조사에는 많은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의 횟수를 보면 매년 1회 이상이 응답한 학교중 85.4%인 35개교로 나타나 참여하고 있는 대학 거의가 매년 1회이상 실시를 하고 있다.

박물관 교육을 실시(표5-4)하는 대학은 20개교인데 교육프로그램의 방법은 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 등과 연계하는 곳이 8개교이고 자체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곳이 8개교로 절반 정도가 연계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체프로그램의 방법(표5-5)은 박물관 대학·박물관교실로 운영하는 곳이 4개교, 일반교양강좌로 실시하는 곳이 6개교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박물관의 교육활동은 상당히 미진하게 실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앞으로는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협회 차원에서 합동으로 개발할 수도 있을 것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치중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 IV. 맺 음 말

대학박물관은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박물관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대학박물관의 주요한 기능은 학술조사, 연구,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우리 대학박물관이 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되돌아 보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논문은 대학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보다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재 박물관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분야별로 요약·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박물관 시설물(건물) 및 전시실

첫째, 대학박물관은 대부분(88%) 종합박물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점 분야는 고고, 역사, 민속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고고분야의 비중이 강한 것은 학술활동이 문화유적조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물관의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술조사에 치중하다 보니 박물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박물관의 다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박물관이 독립된 전용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36%인 23개교이며, 시설의 환경부분은 모든 부분이 불만족스럽게(50% 이상이 각 항목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응답) 나타났다. 이중 보존환경이 78%가 불만족(또는 매우 불만족)하다고 나타나 일부 독립건물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박물관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총 면적이 400평 미만인 학교가 58.5%인 38개교로 이중 100평 미만인 학교도 7개교나 되었다. 전시실 면적도 평균이 299평인데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이 67.7%인 44개교이고, 이 중 100평 미만인 대학이 18개교나 되었다. 또한 전체 면적에 대한 수장고의 면적이 협소하여 보존환경이 열악한 증거를 볼 수 있다. 또한 대학마다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제시한 선진국의 공간사용 모델안은 전시실 27~37%, 수장고 17~27%로 분할되어 있는데 반해, 대학박물관의 공간사용을 평균을 보면, 전시실이 58.5%, 수장고가 15.7%로 나타나 협소한 공간상황으로 인해 전시실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장고 면적은 좁게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결과는 대학박물관이 전체적으로 전시에 치중을 두고 있으며 학술, 교육공간 및 이용자의 휴식공간 운용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절대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2. 소장유물과 전시관계

첫째, 총 유물수는 1995년 조사대상 65개교 53여만점으로 86년 조사대상 47개교 40여만

점에서 13여만점 정도 증가되었다. 이중 전시유물은 평균 1,000여점 정도로 10여%만 전시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이다.

둘째, 개관일수는 5일 이상이 58%, 거의 안한다 14%로 나타났는데 이는 86년 자료와 비슷하다. 이는 시설의 미비와 인원의 부족으로 인해 자료공개가 소극적일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셋째, 소장유물 관리에 대한 일환으로 박물관 자료전산화에 대한 물음을 한 결과 96년까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학교수는 18개교였다. 앞으로 각 박물관이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자료검색을 위한 명칭의 통일과 공통분류방안작성, 분류방안을 표준화하는 형식의 제정 등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자료를 표준화시킴으로서 정보공유를 쉽게 하여 교육·연구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의 실현을 위해 대학박물관 전산화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 3. 박물관 예산 및 재정

첫째, 연간예산(94년 기준)이 3,000만원 이상이 20개교로 나타나, 86년의 16개교에 비해 증가는 하였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예산부족을 토로한 대학이 43개교에 이른다. 예산확충의 정도는 19개교가 100%이상, 4개교가 50%이상을 희망한 것을 보면, 대폭적인 예산의 증액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셋째, 증액요망 예산확충의 계정항목을 보면 조사연구비, 시설비, 유물구입비, 교육활동비, 관리운영비 순으로 나타나 교육활동보다는 조사연구에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전임직원의 전공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 4. 인적구성과 박물관운영

첫째, 대부분의 관장은 교수로 임용되고 있고, 평균연령은 54세로 5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겸직여부에서는 겸직을 하고 있더라도 관련 보직이어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본다. 전공은 관련학도가 90% 이상으로 큰 문제는 없으며, 임기는 2년인데 대부분 중임하고 있다. 강의부담은 1주일에 10시간 이상이 30%로 과중한 강의부담이 학술활동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둘째, 운영위원회는 90%의 박물관이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기능은 주요정책심의의결, 규정개폐, 예결산심의, 구입유물 선정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실질적인 도움에 한계 44%, 자문역할 36%,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10%로 나타나 부정적인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역할수행이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94%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여, 운영위원회가 좀더 적극적인 활동으로 박물관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여진다. 위원회 위원의 전공은 5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관련 전공가가 약간 많아, 전공은 별 문제를 노정시키지 않았다.

셋째, 전임직원의 구성을 보면 학예·사무 겸직 또는 학예직+사무직이 64%로 대부분의 전임직원이 학예와 사무를 겸임하고 있으며, 이중 국립대는 분리되어 있는 곳이 많으며, 사립대는 겸직하고 있는 곳이 많다. 그리고 조교 운용은 22개교에서 운용하고 있다. 전공을 보면 고고학 전공자(41.1%), 역사학 전공자(20%), 미술사 전공자(16.7%)로 나타나 아무래도 문화유적조사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소한 3인 이상의 전임직원을 확보하여 업무를 교육, 연구, 보존관리 및 운영 등으로 분담하여야 하겠다.

경비·환경·관리직이 있는 곳은 14개교로 나타나 보안관리의 허술함이 나타났다. 물론 도난 경보기 등이 설치되어 보관은 하고 있겠지만 완벽한 보안을 위하여 경보기 및 폐쇄회로 TV설치와 함께 경비인의 24시간 근무가 필요하다 하겠다.

대우는 타직종과 비교하여 '비슷하다' 62%, '못하다' 22%로 나타나 비슷하거나 못한면이 많았다고 할 수 있고, 승급 및 승진은 '일반사무직에 준한다' 40%, '나쁘다' 20%로 일반사무직보다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립대학의 경우 학예연구사에서 학예관으로 진급할 수 있는 학예관 T/O가 없기 때문에 승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동기유발과 평생직장으로의 책임감이 부족해 질 수 밖에 없다. 사립대학의 경우는 일반 사무직보다 승진의 기회가 적어 이를 해소할 연구원 직제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전임직원의 연수의 필요성은 86%가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유물의 전시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가 시급한 당면 과제를 알 수 있고, 박물관이 교육활동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5. 교육·연구활동

정기학술지를 발행하고 있는 곳은 22%로 대부분의 대학은 정기학술지를 발행하고 있지 않았다. 학술세미나 개최는 '개최하고 있다'가 36%, '하고있지 않다'가 64%로 나타났고, 학술조사는 82%인 41개교가 '실시하고 있다(1년 1회 이상 35개교)'고 하여 학술활동의 대부분은 학술조사를 위주로 활동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하겠다.

박물관교육은 사회교육원 및 평생교육원 등과 연계하고 있는 곳이 8개교, 박물관 자체에서 박물관 교실이나 교양강좌를 실시하는 곳이 8개교로 나타났다. 이는 박물관 교육활동이 학술조사활동 보다 미진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몇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단순한 공간의 확보는 유물의 보존 및 수집확대 뿐만 아니라 교육·연구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되고 있다. 유물의 완벽한 보존과 체계적인 전시활동을 통한 교육효과의 증대를 위해서 반드시 박물관 전용건물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박물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최소한 3인 이상의 전임직원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

다. 아울러 직원의 위상강화 및 고용안정을 위해 전문직으로서의 연구원직제(전문 Curator) 확립이 필요하다.

셋째, 전임직원에 대한 재교육의 기회를 위해 연수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협회 차원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박물관 자료의 전산화를 위한 '전산화표준위원회(가칭)'와 같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공동프로그램개발은 학술, 연구, 교육적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학박물관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법적근거를 확보해야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할 수 있고,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재정확보의 일환으로 기업체와 연계하여 문화사업을 펼쳐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회원제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박물관 교육의 활성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서로 협조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으로 학예연구원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박물관에 종사하고 있는 구성원 자신과 진정한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해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 우선 모든 이들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박물관 문을 보다 활짝 열어야 한다.

## 〈 表 目 次 〉

표 A> 대학박물관의 특성 .....	3
표 B> 한국의 박물관 현황.....	4
표 C> 지방 국립박물관(8관)의 전시실 및 유물수 현황.....	5
표 D> 일본 지역박물관의 모델案 .....	8
표 E> 위니펙 미술관의 소요공간과 현사용 공간 대비 .....	9
표 F> 박물관 공간의 기능적 배분 .....	10
표 G> 전시실과 수장고의 공간비교 .....	10
표 1-1> 종합박물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	26
표 1-2> 박물관의 중점분야는 무엇입니까? .....	26
표 1-3> 박물관 건물은 어떤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	26
표 1-4> 박물관의 총면적은? .....	26
표 1-5> 박물관 전시실 면적은? .....	26
표 1-6> 박물관 전시실 수는?.....	26
표 1-7> 총면적 대비 전시실면적 구성 비율은? .....	27
표 1-8> 수장고 면적은? .....	27
표 1-9> 총면적 대비 수장고 면적 비율은? .....	27
표 1-10> 전체와 독립건물 등의 비교표 .....	28
표 1-11> 대학당국이 시설투자를 하고자 하는 의욕은?.....	28
표 1-12> 현재의 시설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	29
표 1-13> 현존시설의 문제점(86년 자료) .....	29
표 2-1> 소장유물수량은?.....	29

표 2-2> 전시유물수량은? .....	30
표 2-3> 소장유물 중 전시유물의 비율은? .....	30
표 2-4> 유물의 소장경위는?(우선순위 응답) .....	30
표 2-5> 유물의 등재 방법은?.....	30
표 2-6> 전산화 계획이 있습니까? .....	30
표 2-7> 전산화 계획이 있다면 그 실시시기는? .....	31
표 2-8> 주당 개관 일수는?.....	31
표 2-9> 방학 중에도 개관을 하는가? .....	31
표 2-10> 관람대상자는?.....	31
표 2-11> 박물관 홍보자료는?(복수 응답) .....	31
표 2-12> 특별전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까?.....	32
표 3-1> 박물관 자체 총 예산은(94학년도 기준)? .....	32
표 3-2> 총 예산의 수준은? .....	32
표 3-3> 총 예산 중 유물구입비의 비율은? .....	32
표 3-4> 예산이 적다면 어떤계정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복수 응답) .....	33
표 3-5> 총 예산 중에서 몇% 정도가 확충되어야 하나? .....	33
표 3-6> 학술조사용역의 대외의존예산이 자체 총 예산의 몇 %나 됩니까?.....	33
표 4-1-1> 연구와 행정부서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가?.....	33
표 4-2-1> 관장의 직위는?.....	33
표 4-2-2> 관장이 교무위원인가? .....	33
표 4-2-3> 관장이 다른 보직을 겸임하고 있는가? .....	34
표 4-2-4> 관장의 연령은?.....	34
표 4-2-5> 관장의 강의 부담 시간은? .....	34
표 4-2-6> 관장의 전공.....	34
표 4-2-7> 관장의 임기는?.....	34



표 4-2-8> 관장의 평균 재임 기간은?	34
표 4-3-1>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가?	35
표 4-3-2>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35
표 4-3-3>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은?	35
표 4-3-4> 운영위원회의 기능은?(복수 응답)	35
표 4-3-5> 운영위원회의 실질 역할은?	35
표 4-3-6> 운영위원회 구성위원들의 박물관 관련 전공분야의 비율은?	36
표 4-3-7> 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은?	36
표 4-4-1> 학예(연구)직의 직제가 있는가?	36
표 4-4-2> 학예(연구)직의 직제상 신분은?(복수응답)	36
표 4-4-3> 박물관 직원의 총수는?	36
표 4-4-4> 전임직원의 구성은?	37
표 4-4-5> 전임직원의 대우는?	37
표 4-4-6> 전임직원의 승진 및 승급은 타 직종에 비해 어떻습니까?	37
표 4-4-7> 전임직원의 연수교육의 필요성은?	37
표 4-4-8> 연수교육이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이 좋겠습니까?(우선 순위)	38
표 5-1> 정기학술지를 발행하고 있는가?	38
표 5-2> 학술세미나 개최 여부 및 횟수는?	38
표 5-3> 학술조사 실시 여부 및 횟수는?	38
표 5-4>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이 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 등 일반인 대상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있는가?	38
표 5-5> 박물관 자체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39
참고표> 설문조사 내용	40

표 1-1> 종합박물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무응답	합 계
응답 수	44	6	0	50
비율(%)	88%	12%	0	100%

표 1-2> 박물관의 중점분야는 무엇입니까?

	① 고고 박물관 중심	② 역사 박물관 중심	③ 민속 박물관 중심	고고+ 역사+ 민속	고고+ 민속	역사+ 민속	특수 박물관	기 타	무응답	합 계
응답 수	14	10	8	3	4	1	6	2	2	50
비율(%)	28%	20%	16%	6%	8%	2%	12%	4%	4%	100%

표 1-3> 박물관 건물은 어떤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① 독립건물	② 타기관과 병설	③ 기 타	무응답	합 계
응답 수	18	27	4	1	50
비율(%)	36%	54%	8%	2%	100%

표 1-4> 박물관의 총면적은?

	1,000평 이상	800~ 1,000평	600~ 800평	400~ 600평	200~ 400평	100~ 200평	100평 미만	무응답	합 계
응답 수	11	3	4	9	15	16	7	0	65
비율(%)	16.9%	4.6%	6.2%	13.8%	23.1%	24.6%	10.8%	0	100%

표 1-5> 박물관 전시실 면적은?

	800평 이상	600~ 799평	400~ 599평	200~ 399평	100~ 199평	100평 미만	없음	합 계
응답 수	5	7	6	8	21	16	2	65
비율(%)	7.7%	10.8%	9.2%	12.3%	32.3%	24.6%	3.1%	100%

표 1-6> 박물관 전시실 수는?

	8개 이상	6~7개	4~5개	3개	2개	1개	무응답	합 계
응답 수	4	2	11	8	9	8	8	50
비율(%)	8%	4%	22%	16%	18%	16%	16%	100%

표 1-7> 총면적 대비 전시실면적 구성 비율은?

	80%이상	70 ~79%	60~69%	50~59%	40~49%	30~39%	20~29%	합 계
응답수	8	9	16	5	12	8	5	65
비율 (%)	12.3%	13.8%	24.6%	7.7%	18.5%	12.3%	7.7%	100%

※ 50% 이상 38개교(58.5%)

표 1-8> 수장고 면적은?

	200평 이상	100평~199평	50평~99평	50평 미만	무응답	합 계
응답수	3	9	6	26	6	50
비율 (%)	6%	18%	12%	52%	12%	100%

※ 100평 이상 12개교(24%)

표 1-9> 총면적 대비 수장고 면적 비율은?

	50% 이상	40~49%	30~39%	20~29%	10~19%	10%미만	무응답	합 계
응답수	3	2	0	8	17	14	6	50
비율 (%)	6%	4%	0	16%	34%	28%	12%	100%

표 1-10 > 전체와 독립건물 등의 비교표

	전체 (65개교)	총면적이 400평 이상이거나 전시설 면적이 200평 이상인 학교 (30개교)	박물관 독립건물을 가지고 있는 학교 (23개교)	독립건물이면서 총면적이 400평 이상이거나 전시설 면적이 200평 이상인 학교 (18개교)
합계 (평)	33,207	26,845 (80.8%)	20,681 (62.3%)	19,556
평균 (평)	511	895	899	1,086
대상 학교수	65개교	30개교 (46.2%)	23개교 (35.4%)	18개교
합계 (평)	18,840	15,563 (82.6%)	10,978 (58.3%)	10,465
평균 (평)	299 (58.5%)	519 (58%)	477 (53.1%)	581 (53.5%)
대상 학교수	63개교	30개교 (47.6%)	23개교 (36.5%)	18개교
합계 (평)	4,550	3,313 (72.8%)	2,797 (61.5%)	2,609
평균 (평)	80 (15.7%)	118 (13.2%)	140 (15.6%)	163 (15.0%)
대상 학교수	57개교	28개교 (49.1%)	20개교 (35.1%)	16개교
합계 (점)	529,784	421,758 (79.6%)	373,132 (70.4%)	362,932
평균 (점)	8,151	14,059	16,223	20,163
대상 학교수	65개교	30개교 (46.2%)	23개교 (35.4%)	18개교
합계 (점)	45,927	31,689 (69.0%)	22,866 (49.8%)	21,316
평균 (점)	1,021	1,378	1,270	1,523
대상 학교수	45개교	23개교 (51.1%)	18개교 (40.4%)	14개교

표 1-11 > 대학당국이 시설투자를 하고자 하는 의욕은?

	① 매우 적극적이다	② 적극적이다	③ 보통이다	④ 소극적이다	⑤ 무관심하다	무응답	합계
응답수	0	3	15	26	5	1	50
비율 (%)	0	6%	30%	52%	10%	2%	100%

표 1-12> 현재의 시설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무응답	합 계
1) 시설의 규모 및 면적	1	2	12	24	10	1	50
2) 전시실의 보존환경	·	2	12	20	14	2	50
3) 수장고의 보존환경	·	2	7	22	17	2	50
4) 진열장의 수준	·	4	19	17	9	1	50
5) 조명시설	·	5	16	20	8	1	50
6) 空調(공기조절)시설	·	1	11	22	16	0	50
7) 화재 및 보안시설	·	5	21	15	8	1	50

※ 불만족 또는 매우불만족 누계 (비율)

- 1) 시설의 규모 및 면적 : 34개교 (68%)
- 2) 전시실의 보존환경 : 34개교 (68%)
- 3) 수장고의 보존환경 : 39개교 (78%)
- 4) 진열장의 수준 : 26개교 (52%)
- 5) 조명시설 : 28개교 (56%)
- 6) 空調(공기조절)시설 : 38개교 (76%)
- 7) 화재 및 보안시설 : 23개교 (46%)

표 1-13> 현존시설의 문제점 (86년 자료)

문제점 불만정도	시설규모 및 면적	위치환경	무 응 답	전기시설 (진열장·조명)	안전시설 (화재·도난)	유물보존 처리시설
불편·부족	23	12	18	19	24	2개교
절실히 필요	16	1	8	6	14	2개교

표 2-1> 소장유물수량은?

		500점 이하	501~ 1,000	1,001~ 2,000	2,001~ 3,000	3,001~ 5,000	5,001~ 10,000	10,000점 이상	무응답	합 계
95년 조사 자료	응답수	3	7	9	10	13	17	6	2	67
	비율 (%)	4.5%	10.4%	13.4%	14.9%	19.4%	25.4%	9.0%	3.0%	100%
86년 조사 자료	응답수	4	5	11	4	7	10	6	3	50
	비율 (%)	8%	10%	22%	8%	14%	20%	12%	6%	100%

※ 5,000점 이상 : 23개교 (34.4%)  
8,000점 이상 : 10개교 (15.3%)

표 2-2> 전시유물수량은?

	300점 미만	300~499	500~749	750~999	1,000~1,499	1,500~1,999	2,000점 이상	무응답	합 계
응답수	4	8	10	5	8	4	6	5	50
비율(%)	8%	16%	20%	10%	16%	8%	12%	10%	100%

\* 45개교 총 전시유물수 : 45,927점 (평균 1,021점)

표 2-3> 소장유물 중 전시유물의 비율은?

95년 조사 자료		① 80% 이상	② 79~60%	③ 59~40%	④ 39~20%	⑤ 20% 미만	무응답	합 계
	응답수	4	1	11	10	20	4	50
비율(%)	8%	2%	22%	20%	40%	8%	100%	

  

86년 조사 자료		81% 이상	80~51%	50% 미만	미전시	무응답	합 계
	응답수	2	3	20	17	8	50
비율(%)	4%	6%	40%	34%	16%	100%	

표 2-4> 유물의 소장경위는?(우선순위 응답)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무응답	합 계
1) 발굴품 위주	11	12	10	8	1	8	50
2) 기증품 위주	14	19	13	3	0	1	50
3) 구입품 위주	24	13	8	1	1	3	50
4) 수탁(기탁)품 위주	1	4	12	18	4	11	50
5) 기 타	0	2	1	7	17	23	50

표 2-5> 유물의 등재 방법은?

	① 전산화 되어 있다	② 유물대장 및 유물카드	③ 등재를 않고 있다	④ 기 타	무응답	합 계
응답수	4	45	1	0	0	50
비율(%)	8%	90%	2%	0	0	100%

표 2-6> 전산화 계획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무응답	합 계
응답수	36	12	2	50
비율(%)	72%	24%	4%	100%

표 2-7> 전산화 계획이 있다면 그 실시시기는?

	이미 되어 있다	① 95학년도	② 96도 학년도	③ 97학년도	④ 98학년도	⑤ 99학년도	시 기 미 정	무응답	합 계
응답수	4	5	9	5	5	6	4	12	50
비율(%)	8%	10%	18%	10%	10%	12%	8%	24%	100%

표 2-8> 주당 개관 일수는?

95년 조사 자료		① 1~2일	② 3~4일	③ 5일 이상	④ 비정기 개관을 한다	⑤ 거의 하지 않는다	무응답	합 계
	응답수	6	7	29	3	4	1	50
비율(%)	12%	14%	58%	6%	8%	2%	100%	
86년 조사 자료		1~3일	4일	③ 5일 이상	비 공개		무응답	합 계
	응답수	13	3	27	7		2	52%
비율(%)	26%	6%	58%	14%		4%	104%	

※ 86년 자료 일부 숫자가 틀림

표 2-9> 방학 중에도 개관을 하는가?

	① 한 다	② 안한다	무 응 답	합 계
응답수	23	25	2	50
비율(%)	46%	50%	4%	100%

표 2-10> 관람대상자는?

	① 대학가족예계만 공개	② 일반인 모두 공개	③ 기 타	무 응 답	합 계
응답수	2	45	.	3	50
비율(%)	4%	90%	.	6%	100%

표 2-11> 박물관 홍보자료는?(복수 응답)

	① 도록	② 가이드북, 브로셔, 핸드북	③ 팸플렛	④ 기타	⑤ 홍보를 하지 않는다	무응답	합 계
응답수	26	6	19	10	8	1	70
비율(%)	37.1%	8.6%	27.1%	14.3%	11.4%	1.4%	99.9%

표 2-12> 특별전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까?

	① 매년 1회 이상	② 2년에 1회 정도	③ 3,4년에 1회 이상	④ 경우에 따라서 한다	⑤ 거의 하지 않는다	⑥ 기타	무응답	합 계
응답수	7	9	2	16	15	0	1	50
비율 (%)	14%	18%	4%	32%	30%	0%	2%	100%

표 3-1> 박물관 자체 총 예산은(94학년도 기준)?

95년 조사 자료		500만원 미만	500~1,000만원 미만	1,000~2,000만원 미만	2,000~3,000만원 미만	3,000~5,000만원 미만	5,000~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무응답	합계
	응답수	1	4	7	7	7	8	5	11	50
비율 (%)	2%	8%	14%	14%	14%	16%	10%	22%	100%	
86년 조사 자료		500만원 이하	501~1,000만원	1,001~3,000만원		3,001~5,000만원	5,000만원 이상		무응답	합계
	응답수	7	4	17		5	9		8	50
비율 (%)	14%	8%	34%		10%	18%		16%	100%	

표 3-2> 총 예산의 수준은?

	① 충분하다	② 적당하다	③ 약간 부족하다	④ 부족하다	⑤ 절대 부족하다	무응답	합 계
응답수	0	5	9	24	10	2	50
비율 (%)	0	10%	18%	48%	20%	4%	100%

표 3-3> 총 예산 중 유물구입비의 비율은?

95년 조사 자료		20% 이하	21~40% 이하	41~60% 이하	61~80% 이하	81% 이상	없음	무응답	합 계
	응답수	10	10	6	6	1	7	10	50
비율 (%)	20%	20%	12%	12%	2%	14%	20%	100%	
95년 조사 자료		20% 이하	21~40% 이하	41~60% 이하	61~80% 이하	81% 이상	없음	무응답	합 계
	응답수	8	11	9	10	6	·	6	50
비율 (%)	16%	22%	18%	20%	12%	·	12%	100%	



표 3-4> 예산이 적다면 어떤계정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복수 응답)

		① 유물 구입비	② 관리 운영비	③ 조사 연구비	④ 교육 활동비	⑤ 시설비	⑥ 인건비	⑦ 기타	무응답	합 계
95년 조사 자료	응답수	18	10	28	11	21	5	2	4	99
	비율(%)	18.2%	10.1%	28.3%	11.1%	21.2%	5.1%	2.0%	4.0%	100%
86년 조사 자료	응답수	28	4	26	9	12	8			87
	비율(%)	32.2%	4.6%	29.9%	10.3%	13.8%	9.2%			100%

표 3-5> 총 예산 중에서 몇% 정도가 확충되어야 하나?

	200% 이상	100% 이상	50~99%	30~49%	30% 미만	무응답	합 계
응답수	6	13	4	5	6	16	50
비율(%)	12%	26%	8%	10%	12%	32%	100%

표 3-6> 학술조사용역의 대외의존예산이 자체 총 예산의 몇 %나 됩니까?

	① 200% 이상	② 100% 이상	③ 50% 이상	④ 50% 미만	⑤ 없다	무응답	합 계
응답수	10	5	5	6	15	9	50
비율(%)	20%	10%	10%	12%	30%	18%	100%

표 4-1-1> 연구와 행정부서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가?

	① 있다	② 없다	무응답	합 계
응답수	18	32	.	50
비율(%)	36%	64%	.	100%

표 4-2-1> 관장의 직위는?

	① 교수	② 부교수	③ 조교수	④ 기타	무응답	합 계
응답수	35	10	4	.	1	50
비율(%)	70%	20%	8%	.	2%	100%

표 4-2-2> 관장이 교무위원인가?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무응답	합 계
응답수	12	36	2	50
비율(%)	24%	72%	4%	100%

표 4-2-3> 관장이 다른 보직을 겸임하고 있는가?

	① 있 다	② 없 다	무 응 답	합 계
응 답 수	9	41	·	50
비율(%)	18%	82%	·	100%

※ 겸직일때 보직명 : 부총장, 민속학연구소장, 아시아문화연구소장, 미협이사장, 가야문화연구소장, 학과장, 이화역사실장, 등

표 4-2-4> 관장의 연령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무응답	합 계
응 답 수	·	14	23	14	·	50
비율(%)	·	28%	46%	28%	·	100%

※ 관장의 평균 연령 : 53.4세

표 4-2-5> 관장의 강의 부담 시간은?

	3시간 이하	4~6시간	7~9시간	10시간 이상	무응답	합 계
응 답 수	3	12	18	15	2	50
비율(%)	6%	24%	36%	30%	4%	100%

표 4-2-6> 관장의 전공분야는?

		① 고고학	② 미술사학	③ 민속학	④ 인류학	⑤ 역사학	⑥국문학	⑦ 기타	무 응 답	합 계
95년 설문 내용	응 답 수	11	8	2	·	20	1	8	·	50
	비율(%)	22%	16%	4%	·	40%	2%	16%	·	100%
86년 설문 내용	응 답 수	11	2	2	·	22	5	7	1	50
	비율(%)	22%	4%	4%	·	44%	10%	14%	2%	100%

※ 기타 전공 : 지리학2, 법학, 어업공학, 미학(중문학), 교육학, 공예학, 서양화

표 4-2-7> 관장의 임기는?

	1년	2년	3년	4년	5년이상	무응답	합 계
응 답 수	1	43	1	1	2	2	50
비율(%)	2%	86%	2%	2%	4%	4%	100%

표 4-2-8> 관장의 평균 재임 기간은?

	1~2년	3~4년	5~6년	7~8년	9~10년	11년이상	무응답	합 계
응 답 수	20	18	5	4	2	·	1	50
비율(%)	40%	36%	10%	8%	4%	·	2%	100%

※ 평균 재임기간 : 3.62년

표 4-3-1>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가?

	① 있 다	② 없 다	무 응 답	합 계
응 답 수	45	4	1	50
비율(%)	90%	8%	2%	100%

표 4-3-2>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① 박물관장	② 총장	③ 부총장	④ 기타	무응답	합 계
응 답 수	34	5	2	2	7	50
비율(%)	68%	10%	4%	4%	14%	100%

표 4-3-3>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은?

95년 조사 내용		① 5인 이하	② 6~9인	③ 10인 이상	무 응 답	합 계
	응 답 수	16	24	5	5	50
비율(%)	32%	48%	10%	10%	100%	
86년 조사 내용		① 6인 이하	② 7~8인	③ 10인 이상	무 응 답	합 계
	응 답 수	16	20	5	9	50
	비율(%)	32%	40%	10%	18%	100%

표 4-3-4> 운영위원회의 기능은?(복수 응답)

	① 주요 정책의 심의 의결	② 예결산 심의	③ 규정 개폐	④ 구입유물 선정	⑤ 기타	무응답	합 계
응 답 수	36	18	24	15	4	5	102
비율(%)	35.3%	17.6%	23.5%	14.7%	3.9%	4.9%	99.9%

표 4-3-5> 운영위원회의 실질 역할은?

	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② 자문역할	③ 명목상의 조직으로 실질적 도움에는 한계	무 응 답	합 계
응 답 수	5	8	22	5	50
비율(%)	10%	36%	44%	10%	100%

표 4-3-6> 운영위원회 구성위원들의 박물관 관련 전공분야의 비율은?

	70% 이상	50~69%	30~49%	30%미만	무응답	합 계
응답수	11	13	12	7	7	50
비율(%)	22%	26%	24%	14%	14%	100%

※ 전공 내역 : 고고학17, 미술사학17, 민속학16, 인류학2, 역사학64, 국문학20(누계;136명, 53.3%), 기타119명, 합; 255명, 무응답7명

표 4-3-7> 운영위원회의 필요성?

	① 반드시 필요	② 어느 정도 필요	③ 불필요	④ 반드시 필요 없다	무응답	합 계
응답수	16	31	1	·	2	50
비율(%)	32%	62%	2%	·	4%	100%

표 4-4-1> 학예(연구)직의 직제가 있는가?

	① 있 다	② 없 다	무응답	합 계
응답수	33	17	·	50
비율(%)	66%	34%	·	100%

표 4-4-2> 학예(연구)직의 직제상 신분은?(복수응답)

	① 교원	② 연구 직원	③ 일반 직원	④ 전문 직원	⑤ 별정 직원	⑥ 임시 직원	⑦ 조교	⑧ 기타	무응답	합 계
응답수	2	21	13	5	2	3	12	7	2	50
비율(%)	3.0%	31.3%	19.4%	7.5%	3.0%	4.5%	17.9%	10.4%	3.0%	100%

표 4-4-3> 박물관 직원의 총수는?

	1인	2인	3~5인	6~8인	9인 이상	무응답	합 계
응답수	5	13	19	4	9	·	50
비율(%)	10%	26%	38%	8%	18%	·	100%

표 4-4-4> 전임직원의 구성은?

	학예·사무 겸직+학예+ 사무직	학예·사무 겸직+학예직	학예·사 무겸직+ 사무직	학예직+ 사무직	학예· 사무겸 직만	학예 직만	사무 직만	한시 직 및 기타	합 계
응답 수	4	2	2	16	16	3	4	3	50
비율 (%)	8%	4%	4%	32%	32%	6%	8%	6%	100%

표 4-4-5> 전임직원의 대우는?

	① 타 직종보다 매우 좋다	② 타 직종보다 좋다	③ 비슷하다	④ 타 직종보다 못하다	⑤ 타 직종보다 매우 못하다	무응답	합 계
응답 수	·	2	31	8	3	6	50
비율 (%)	·	4%	62%	16%	6%	12%	100%

표 4-4-6> 전임직원의 승진 및 승급의 타 직종에 비해 어떻습니까?

	① 교원에 준한다	② 일반 사무직보다 조금 좋다	③ 일반 사무직에 준한다	④ 일반 사무직에 비해 나쁘다	⑤ 기타	무응답	합 계
응답 수	2	1	20	10	8	9	50
비율 (%)	4%	2%	40%	20%	16%	18%	100%

표 4-4-7> 전임직원의 연수교육의 필요성은?

95년 조사 자료		① 반드시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필요치 않다	⑤ 매우 필요치 않다	무응답	합 계
	응답 수	14	29	3	1	·	50	
비율 (%)	28%	58%	6%	2%	·	100%		
86년 조사 자료		① 절실하다	② 필요하나 큰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		③ 필요없다		무응답	합계
	응답 수	21	25		2		2	50
비율 (%)	42%	50%		4%		4%	100%	

표 4-4-8> 연수교육이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이 좋겠습니까? (우선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무응답	합 계
1)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20	14	7	5	4	50
2) 유물의 전시에 관한 사항	12	19	12	2	5	50
3)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2	4	14	24	6	50
4)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12	9	12	8	9	50

\* 기타 내용 : 박물관에 관한 기본교육, 전문지식인 필요, 유물 안전 보존관리에 관한 교육, 어학, 박물관 일반적인 일, 선진박물관 견학.

표 5-1> 정기학술지를 발행하고 있는가?

	① 있 다	② 없 다	무 응 답	합 계
응 답 수	11	39	.	50
비율(%)	22%	78%	.	100%

표 5-2> 학술세미나 개최 여부 및 횟수는?

횟 수	있다(41개교, 82%)				없 다	합 계
	부정기적	1년 1회	1년 2회	1년 3회 이상		
응 답 수	5	8	2	3	32	50
비율(%)	10%	16%	4%	6%	64%	100%

표 5-3> 학술조사 실시 여부 및 횟수는?

횟 수	있다(41개교, 82%)				없 다	합 계
	부정기적	1년 1회	1년 2회	1년 3회 이상		
응 답 수	6%	13	11	11	9	50
비율(%)	12%	26%	22%	22%	18%	100%

표 5-4>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이 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 등 일반인 대상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있는가?

	① 연계하여 교육하고 있다	② 박물관 자체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다	③ 기타	④ 없다	무응답	합 계
응 답 수	8	8	4	14	16	50
비율(%)	16%	16%	8%	28%	32%	100%

표 5-5> 박물관 자체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① 박물관 대학·교실	② 일반 교양강좌	③ 기타	무응답	합계
응답수	4	6	2	38	50
비율(%)	8%	12%	4%	79%	100%

참고표 > 설문조사 내용

순 번	설문 여부	총면적 (평)	전시실 면적	수장고 면적	야외전시장 면적	총 유물수	전시 유물수	국보등	관람객 수	전시실 구성數
1	0	230.6	115.9 (50.3%)	34.9 (14.8%)		3,054	1,000			3
2	0	452.4	313.5 (69.3%)	29.1 (6.4%)		7,601	918		1,000	4
3	0	350	150 (42.9%)	100 (28.6%)		5,012	500	1-1-1	1,200	3
4	0	200	180 (90%)			1,200	500		500	2
5	0	125	54 (43.2%)	22.3 (17.8%)		4,681	450		900	1
6	*	1,648	745.2 (45.3%)	250.2 (15.2%)	4,151	6,709	1,921	0-7-0	15,000	6
7	0	434.5	147.1 (33.9%)	29.4 (6.8%)		3,182	384		4,000	2
8	0	347	130 (37.5%)	84 (24.2%)	20	6,369	1,820		500	3
9	0	1,110	885 (79.7%)	136 (12.3%)	100	5,912	2,500		2,000	9
10	*	470.6	197.3 (41.9%)	144.1 (30.6%)		2,078			3,000	
11	0	641.7	473.9 (73.8%)	81 (12.6%)	500	96,000	3,500	3-1-24		8
12	0	945	660 (69.8%)		1,000	2,277	1,028		80,000	3
13	*	119.5	87.7 (73.4%)	0		799			150	
14	0	102.3	70.6 (69.0%)	19.4 (19.0%)		668	500		1,400	3
15	*	403.3	387.4 (96.1%)	6 (1.5%)		6,578			2,500	
16	*	82.4	74.4 (90.3%)	0	14.9	936			600	
17	0	461	251 (60.4%)	31 (7.5%)		12,881	801		8,100	8



순 번	설문 여부	총면적 (평)	전시실 면적	수장고 면적	야외전시장 면적	총 유물수	전시 유물수	국보등	관람객 수	전시실 구성數
18	0	83.6	57.3 (68.6%)			1,165	350		720	1
19	0	208	100 (48.1%)	40 (19.2%)		9,885	2,000		2,000	1
20	0	173.2	154 (88.9%)	10 (5.8%)	40.5	4,788	1,824		1,500	4
21	0	1,200	1,000 (83.3%)	40 (3.3%)		2,808	1,200		1,511	5
22	0	117	77 (65.9%)	27 (23.1%)		2,315	600		1,200	4
23	0	334.5	111.5 (33.3%)	56.8 (17.0%)		2,644	163	3-9-0		
24	*	196.1	157.2 (80.1%)	13.0 (6.6%)		179				
25	0	670.3	181.4 (27.1%)	413.8 (61.7%)	60.1	23.44	952	1-11-2	5,000	4
26	*	550.4	220.4 (40.0%)	72.6 (13.2%)		2,714				
27	0	526.4	472.9 (90.0%)	9.6 (1.8%)		4,420	2,000		500	4
28	0	144.1	33 (22.9%)	33 (22.9%)		3,640	0		1,500	2
29	0	444	120 (27.0%)	192 (43.2%)		19,821	1,500	0-0-1	4,000	2
30	0	373	250 (67.0%)	10 (2.7%)	50	851	800			5
31	0	166	40 (24.1%)	40 (24.1%)		2,572	220		1,400	1
32	0	86	60 (69.8%)	20 (23.3%)		1,500	550		300	1
33	0	1,865	603 (32.3%)	181 (9.7%)	1,000	6,904	1,000	0-4-4		5
34	0	255.5	106.9 (41.8%)	12.1 (4.8%)	121.2	940	387		500	

순 번	설문 여부	총면적 (평)	전시실 면적	수장고 면적	야외전시장 면적	총 유물수	전시 유물수	국보등	관람객 수	전시실 구성數
35	0	188.5	88.0 (46.7%)	19.3 (10.2%)		14,760	290	0-1-0	100	5
36	0	164.2	106.8 (65.0%)	20 (12.2%)		2,173	300	0-1-0	297	4
37	0	60.5	0	30.4 (50.1%)		1,825				
38	0	1,550	1,250 (80.6%)	250 (16.1%)		4,045	1,200	0-0-18	10,000	4
39	0	241	163.3 (67.8%)	61.3 (25.4%)		4,069	300	65	2,400	1
40	0	555.1	370.3 (66.7%)	49.7 (8.9%)		6,761	1,886	2-2-0	2,800	2
41	0	164.8	104.4 (63.3%)	30.9 (18.8%)	521.3	3,156	1,071	0-0-2	3,000	1
42	0	1,145.3	816.1 (71.3%)	128.3 (11.2%)	412.3	44,353	4,200	0-1-0	6,500	10
43	*	2,208	705.3 (31.9%)	343.2 (15.5%)		12,317	1,000	0-1-0	10,000	7
44	*	870.1	693.7 (79.7%)	118.3 (13.6%)		8,721			20,000	
45	*	1,802	1,024 (56.8%)	145.9 (8.1%)	1,010	8,667	2,000	0-12-2	50,000	3
46	0	1,300	467 (35.9%)	220 (16.9%)	200	8,700	600	1-11-0	12,464	무응답
47	?	164.6	79.3 (48.2%)	79.3 (48.2%)						
48	*	307.8	120.1 (39.0%)	46.5 (15.1%)		5,772				
49	*	390	242 (62.1%)	39.2 (10.1%)	148	20,549	2,100			5
50	0	91.65	60.9 (66.4%)	13.6 (14.8%)		1,044	600		150	1
51	0	315	244 (77.4%)	33 (10.5%)		1,209	570		1,500	3

순 번	설문 여부	총면적 (평)	전시실 면적	수장고 면적	야외전시장 면적	총 유물수	전시 유물수	국보등	관람객 수	전시실 구성數
52	0	306.2	135.1 (44.1%)	135.1 (44.1%)		4,903	400	0-0-15	1,500	2
53	*	120.1	30 (25%)	36 (30%)		213				
54	*	151.2	55.1 (36.5%)	36 (23.8%)		6,340			1,800	
55	0	41.1	27.8 (67.6%)	0		291	291		500	무응답
56	0	315	250 (79.4%)	20 (6.3%)		1,001	1,000		5,000	2
57	0	332	149 (44.9%)	96 (28.9%)		1,838	322			2
58	*	376.5	176.9 (47%)	92.6 (24.6%)		3,164			2,200	
59	0	180.8	136.8 (75.7%)	0		861	800	2,960	3	
60	*					3,000				
61	0	600	470 (78.3%)	100 (16.7%)		6,461	510			7
62	0	122.8	84.1 (68.5%)	8.8 (7.2%)		1,705	무응답		1,592	무응답
63	0	27.0	없음	18.8 (69.6%)		565	없음			없음
64	0	1,287	708 (55%)			5,022				미개관
65	*	870	520 (59.8%)	87 (10.0%)	500	4,329	1,000	1-1-0	80,000	3
65	0	860.5	510 (59.3%)	73.6 (8.6%)		2,982	1,490	0-1-0		2
67	0	1,153.4	625.8 (55.1%)	118.3 (10.3%)		3,010	650		2,300	6